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통치리더십

이 무 철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원

CONTENTS

chapter 01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6

chapter 02

북한의 당·국가체제와 통치리더십 14

1. 통치리더십이란 무엇인가?
2. 전통적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
3. 북한의 '수령제'와 권력세습

chapter 03

숙청 사례로 본 김정은의 '공포정치' 30

1. 리영호 숙청과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1)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정치적 과제
   2) 리영호 해임과 군부의 역할 축소
2.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1)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과 장성택 숙청
   2)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의 홀로서기
3. 고위관료 숙청과 충성경쟁 유도
   1)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2) 북한식 '부패와의 전쟁'과 충성경쟁 유도
4.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권력엘리트 변동
   1) 김정은의 친정체제 구축
   2) 제7차 당대회 이후 엘리트 변동

chapter 04

김정은의 통치리더십 성격과 한계 72
1.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공포정치'
   1) '인민사랑의 정치':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 강요
   2) 김정은 '공포정치'의 의도와 효과
2.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특징
   1) 체제 특성과 리더십: 권위주의적, 철인적 리더십
   2) 김정은 리더십의 형성
   3)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
3.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한계

chapter 05

김정은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104

참고문헌

chapter
01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chapter 01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Ⅰ. 김정은의 '공포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김정일 사망(2011.12.)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 등 핵심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숙청 등과 함께 고위관료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 즉 '인민사랑의 정치'로 접근하는 인민친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대내적으로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 인민들에 대한 '인민사랑의 정치'로, 대외적으로는 핵·미사일 시험 등을 통해 한반도 위기국면을 조성하고 이를 대내결속을 다지는데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권력 공고화 및 리더십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1월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은 제7차 당대회(2016.5.6.~9.)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였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기존 '제1비서'라는 직책을 폐지하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직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추대하였다.[1] 당 위원장은 전 당을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김정은은 당 위원장직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 당의 최고영도자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확고히 한 것이다. 또한 제7차 당대회 이후 개최된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2016.6.29.)에서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하였다.[2] 이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은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고, 당위원장, 국무위원장,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책을 통해 당·정·군을 장악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 등 핵심 권력 엘리트를 비롯한 고위관료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계속 진행하자, 국내외 언론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관계당국도 김정은 측근을 포함한 핵심 간부들이 숙청을 당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공포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간부사회에선 중대한 잘못이 없는데도 이견을 제시했거나 회의 중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숙청이 이루어지자 '책임 있는 고위직'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숙청과 처벌은 제7차 당대회 이

1) 『로동신문』 2016년 5월 9일.

2)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연합뉴스』 2016년 6월 29일.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3] 이를 반영하듯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한국 망명 등 북한 고위관료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고위관료들의 동요와 이탈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김정은의 정치행태를 지칭하는 '공포정치'라는 개념은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 피에르를 중심으로 하는 자코뱅파가 투옥, 처형 등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한 정치행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4] 이후 공포정치는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중앙집권적 국가폭력을 활용하여 대중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형태를 의미하게 된다. 주로 독재 정권 및 권위주의체제에서 활용되는 정치행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스탈린의 대숙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재자들에게 공포정치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포정치는 궁극적으로 독재자의 권력기반 약화를 가져와 결국 독재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의 권력 지속성이 꽤 길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공포정치가 시행되는 원인과 맥락이 사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공포정치는 심리적 공포와 위축감을 조장함으로써 잠재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는 한편 밑으로부터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

3) 2016년 8월 31일 통일부는 2016년 7월경에 김용진 내각 부총리가 처형됐고, 김영철 당 통전부장이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北, 김용진 부총리 처형·김영철 통전부장 혁명화 조치",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4)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검색일: 2016년 9월 26일).

나 이를 추진하는 동기는 다양하다. 공포정치의 동기는 정통성의 부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통치력의 한계에 직면한 지도자의 자포자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 잘 짜인 권력 안정화의 각본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공포정치를 시행하면서 정권의 업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에 대항하는 잠재적 반대세력의 조직화 정도는 어떠한가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5)]

김정은의 숙청작업을 '공포정치'로 규정한다면, 선대 '수령'(김일성, 김정일) 시기에 진행된 숙청작업도 공포정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이는 김정은이 선대 수령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당·정·군의 핵심 권력 엘리트에 대한 잦은 숙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선대 수령과 달리 공포정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김정은의 통치력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가?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통해 볼 때,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과연 외형상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해 보이는 가운데, 공포정치로 인해 간부사회의 동요와 이탈현상이 증가하면서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김정은의 북한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기서는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통치리더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모든 권력을 독점한 수령의 통치행태와 리더십은 북한체제를 전망하

5) 차두현, "김정은식 공포정치 하의 북한: 안정화 마무리를 위한 극약처방인가, 불안정 시작의 서곡인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2015. 5. 15.), p.2.

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선 2장에서는 김정은 통치행태와 리더십 분석의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는 통치리더십 이론과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 북한의 '수령제'와 권력세습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숙청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공포정치의 배경과 이유, 공포정치로 인한 권력 엘리트 변동 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성격과 한계 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 결론 부문에서 이를 종합하여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chapter
02

북한의 당·국가체제와 통치리더십

1. 통치리더십이란 무엇인가?
2. 전통적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
3. 북한의 '수령제'와 권력세습

chapter 02

북한의 당·국가체제와 통치리더십

1. 통치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더십에 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 리더십 연구들은 리더십을 지도자가 지닌 특성(자질과 능력)과 이러한 특성이 발현되는 지도자의 행동양식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리더십 연구가 분석적 수준에 있어 개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능력, 자질, 특성, 심리 등을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정치학, 행정학 등에서의 리더십 연구는 지도자가 동의를 얻어내는 기술, 영향력의 행사, 설득의 한 형

태, 권력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리더십을 설명하기도 한다.[6] 한 연구는 리더십을 국가경영자가 대항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지지,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정치공학술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두려운 지도자보다는 존경하는 지도자를 더 쉽게 배반한다는 마키아벨리의 리더십 주장, 즉 인간적이면서도 야만적인 이중적 성향의 리더십을 강조한다. 따라서 리더십을 정치공학적인 측면, 일종의 처세술과 통치술의 시각에서 풀어나가기도 한다.[7]

이러한 리더십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리더십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관계, 권력표출의 과정적 의미로 보고 있다. 또한 리더십을 지도자 개인의 자질, 능력, 비전, 도덕의 문제로 보고 있다. 리더십을 사회적 관계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개인적인 것,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리더십과 관련된 성원들을 단순히 권력과 지배의 대상인 수동적인 존재로만 묘사하고 있다. 즉 리더십의 문제를 단순히 지도자 개인의 자질, 역량, 품성 등의 문제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보면 권력은 단순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자 영향력에 불과하며 권력이 국가, 정치사회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발현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없게 된다. 리더십은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특정한 사회적 권력에 배태된 개념으로 관련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을 정체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리더십으로 인해 파생되는 권력구조의 움직임, 국가질서의

6) 박찬욱·정윤재·김남국, 『미래 한국인의 정치적 리더십』(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p. 17.

7) 김호진,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서울: 청림출판, 2006), p. 115.

변화, 정치적 역학 등을 분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리더십을 단순히 개인적 자질과 역량, 성격 등의 문제로 국한하면 리더십을 통해 발생하는 통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다는 것이다.[8)]

리더십은 권력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것은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틀 속에서 상호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은 특정한 권력구조 내에서 관련 주체들이 상호작용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지배, 통치, 갈등, 통합 등의 다양한 모습이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권력의 문제를 설명할 때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상호작용의 특정한 사회적 맥락의 문제를 강조한다. 따라서 권력에서 파생하는 리더십은 특정 개인의 능력, 역량, 도덕적 책임성, 심리상태, 통찰력, 사고에서 일방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된 형태로 객관적, 양적으로 측정될 수도 없다. 리더십이 인간들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파생될지라도 그것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영향력, 힘의 역학관계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때 권력, 리더십의 문제가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러한 입체적 분석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 연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및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북한 지도

8) 윤민재,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통치성, 그리고 정치사회",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27호(2012), pp. 19~20.

자의 리더십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의 리더십을 개인의 능력, 역량, 통찰력 등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권력엘리트, 대중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권력을 둘러싼 상호작용의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감안해 접근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든 지도자는 그 국가의 정치체제, 지배이데올로기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체제의 지도자와 사회주의체제의 지도자, 또는 독재 및 권위주의체제 지도자의 행동 양태는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은의 통치행태와 리더십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련 스탈린에 의해 형성된 전통적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북한의 '수령제'와 권력세습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전통적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

사회주의 혁명 이후 소련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포위된 상태와 '저발전'이라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해 나가야 했다. 혁명 이후의 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한 소련은 사회주의체제를 바탕으로 저발전을 극복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보다 우월한 체제임을 입증해야 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는 발전전략과 결부되어 그 전략을 집행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형성되어 나갔다. 결국 사회주의 이상은 산업화, 근대화의 수단이 되어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추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9]

레닌 이후 최고지도자가 된 스탈린은 당의 권력독점을 바탕으로 저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후발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영역의 제도적 기반들이 되었다.

스탈린에 의해 형성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10]

첫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시장 배제와 계획경제 운영이다. 우선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이상은 자본주의적 모순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시장과 소유관계는 철폐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화되었고, 시장은 거의 무의미한 역할만을 위해 존재하게 됐다.

둘째, 이러한 경제시스템 및 사회전반을 운영해 나가는 공산당의 권력독점이다.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된 상황에서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형식상 전 인민의 소유에 기초한 전체 인민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력을 행사하는 공산당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9) 디이터 젱하스,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0), pp. 66~79.
10)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연구사, 1994), pp. 50~52.

때, 명령경제의 경영은 시장경제 경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당 조직에게는 보다 단순하고 부담도 적었다. 또한 당 조직은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와 관리를 통해서 당의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박탈할 수 있었다. 모든 권력을 독점한 공산당은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 및 군대 등 모든 사회 조직을 당의 정책을 집행 및 수행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즉 국가체제 위에 군림하는 당·국가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당·국가 조직의 권력 독점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욱 견고화되어 갔던 것이다.

셋째, 당·국가 조직은 이데올로기 독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당·국가체제는 맑스-레닌주의 이외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국가 관료조직의 모든 정책의 집행과 그 결과는 맑스-레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 조직은 정책결정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위계적인 관료제적 지배(bureaucratic dominance)조직 형태를 더욱 강화해 나갔다. 또한 이러한 조직형태는 당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군대를 비롯한 모든 사회조직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모든 조직형태는 당의 결정을 일사불란하게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나갔다. 결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위계적 관료제는 생산주체 및 개별행위자들의 행위양식, 나아가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을 규정,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지배의 핵심 축은 위계적인 당·국가 조직과 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다. 위계적인 당·국가 조직은 반대세력을 용납하지 않으며 당원들의 충성과 규율에 의해 유지된다. 계획경제는 이러한 당·국가 조직의 효율적 지배의 기반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당·국가 조직이 사회자원의 활용 및 분배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가 조직은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활용하여 정치적 규율과 충성심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11] 즉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계획경제를 통해 자원을 중앙집중화시키고, 모든 권력을 독점한 당·국가 조직이 이를 정치적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분배해 왔다.

실제로 현실 사회주의국가들은 체제에 대한 반대를 줄이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시활동, 그리고 사회적 재분배와 복지에 대한 약속을 활용하였다. 이 가운데 사회적 재분배와 복지에 대한 약속에 주목하여 사회주의적 지배구조의 특징을 가부장제(paternallism)에 비유하기도 한다.[12] 가부장제는 당·국가가 모든 사회자원을 소유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분배해 준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당·국가는 주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사회주의 대가정론' '어버이 수령' 등의 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가부장적 특징이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다.

---

11) Andrew Walder, "The Quiet Revolution from Within: Economic Reform as a Source of Political Decline", Andrew G.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Berker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pp. 1~2.

12) 사회주의적 가부장제는 국가소유제 자체가 야기한 결과물로 국가와 관료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의존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왈더(Walder)는 현대 공산주의 사회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체제로서 "제도화된 후견주의(institutionalized clientelism)"라고 규정한다.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p. 8.

이같은 가부장적 지배관계는 중앙계획경제라는 경제조직, 관료들이나 일반주민들 모두 그들의 상급자들에 대한 조직화된 의존관계, 그리고 정치적 행태를 감시하는 많은 수단 혹은 주민 층의 정치적 행태에 상응한 상벌 능력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13] 이러한 특성들은 사회주의 당·국가 조직이 막대한 권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위계적인 당·국가 관료조직의 특성상 모든 권력은 상층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권력집중의 극단적 형태가 바로 일인독재라 할 수 있다. 정적 및 반대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는 스탈린에 의해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적 및 반대세력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스탈린의 대숙청은 1934년부터 시작되어 1940년 멕시코에 망명 중이던 트로츠키를 암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1934년 키로프의 암살로 시작된 대숙청 작업은 1936년 지노비예프와 카메네프 및 톰스키 등 16인의 숙청, 1937년 라데크 등 17인 숙청, 1938년 부하린과 류코프 및 야고다 등 21인 숙청 등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볼세비키 혁명을 함께 했던 동료들이었다. 스탈린의 숙청작업은 당 중앙위원은 물론 그 하부에까지 철저히 미친 방대한 규모의 것으로, 1933~1938년 사이에 숙청된 당원의 수는 최소한 160만 명에 이르렀다. 서방의 한 통계는 약 700만 내지 800만 명의 시민이 이 숙청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14] 숙청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한 스탈린과 그의 추종

13)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p. 302.
14)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검색일: 2016년 10월 5일).

세력들은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통해 스탈린을 신격화해 나갔다.

어쨌든 스탈린에 의해 형성된 권력구조는 이후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받아들여졌다. 초기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구조는 스탈린식의 권력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최고지도자는 당·국가체제를 초월한 존재로 제도를 활용해 통치하는 '제도적 리더십'보다는 개인의 카리스마, 인격 등을 활용한 '인격적 리더십'을 통해 주로 통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스탈린의 사망 이후 소련에서 스탈린 비판 작업이 진행되면서 '탈스탈린화'를 진행해 나갔고 이를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모택동,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북한의 김일성 등은 이를 거부하고 최고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특히 북한은 이러한 최고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극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수령제'라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권력세습을 통해 이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3. 북한의 '수령제'와 권력세습

북한의 김일성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 형성과정에서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정적과 반대파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국가체제 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권력구조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이를 바

탕으로 스탈린 사후 비판 현상에서 교훈을 얻어 최고지도자 사후 권력투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 후계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여 수령 중심의 지배구조와 후계체제를 정당화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위에 군림하는 수령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통해 수령의 유일영도, 수령에 대한 충성, 수령의 무오류성 등을 정당화한다. 주체사상의 내용 가운데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북한의 이러한 정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관점이 혁명적 수령관이다. 혁명적 수령관에 따르면, 역사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지만 지도자 없는 대중은 무의식적인 비조직 군중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령의 영도가 필수적이며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15] 즉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그들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오직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로 통일 단결될 때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16]

15)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동경: 구월서방 번각 발행), p. 122.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212에서 재인용.

16)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평양: 평양출판사, 1992), p.165.

따라서 수령의 지위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로 규정된다.[17] 수령의 역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정확히 반영한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으로 규정된다.[18]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 인해서 수령은 절대적인 존재로 설정된다. 따라서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드는 견해와 관점, 자세와 입장”을 그 본질로 삼게 된다.[19]

이러한 혁명적 수령관은 ‘후계자론’과 연결된다. 북한은 ‘수령 령도의 계승성’ 문제 해결을 주장하면서 수령으로서의 사상, 자질 능력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수령영도를 계승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는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미화하는 작업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적 수령관과 후계자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이분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생명유기체로서 살며 활동하는 육체적 생명과 사회적 존재로서 살며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 생명이 있다. 이 양자 중에 중요한 생명이 정치적 생명이다. “개인의 육체적 생명은 끝나도 그가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더불어 영생하게 된다”는 것이다.[20] 즉, 정치적 생명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

17)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199.
18)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200~201.
19)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602.
20)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 p.18.

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유지되는 생명이며, 역사에 길이 빛나는 생명으로서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것이다.[21]

그런데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은 그 생명의 중심이다. 육체적 생명은 친부모가 주지만 정치적 생명은 수령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22] 따라서 수령·당·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체 내에서 '혈연적 관계'로 맺어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대중에게는 '생명의 은인'인 '어버이수령'에 대해서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역으로 인민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반대급부로 이민위천에 바탕을 둔 수령의 인덕정치가 약속된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은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역할도 그 영도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에 의하여 대표된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생명을 매개로 어버이수령, 어머니당, 대중이 '혈연적 관계'에 기초해서 혁명의 주체로서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혁명적 대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회체제, 이것이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수령은 당이나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지위를 초월한 존재이다. 북한은 이러한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수

21) 권혁, 『일심단결의 대가정』(평양: 평양출판사, 1993), p.188.

2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167.

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유일한 영도 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는 것은 당을 포함해 모든 기관과 단체의 어길 수 없는 철칙이자 규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령의 영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도의 계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 아래 김일성 수령은 김정일 수령으로, 다시 김정일에서 김정은 수령으로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이다.[23]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은 2013년에 김정일이 1974년에 제시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더욱 강화한 '당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개정하여 자신의 유일영도체계 확립하는 데 활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수령제 정치체제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보면, 앞서 설명한 사회주의적 가부장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사회주의적 당·국가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결국은 수령 중심의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사회주의적 가부장적 특성을 더욱 견고하게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수령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는 수령 지위를 둘러싼 권력투쟁은 존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주요 기관과 엘리트 개인의 권력과 이권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 이

23)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2014), pp.181~183.

러한 경쟁은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이라는 외피를 갖는다.[24] 이러한 조건에서 수령은 엘리트, 대중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치리더십 목표는 대중의 지지를 도모하고 노력을 동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대중의 지지는 통치자의 과거 업적에 대한 존경에 기반한 도덕적 지지(moral support)와 현재의 업적에 대한 평가에 바탕을 둔 현실적 지지(realistic support)로 구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의 핵심 수단은 인격과 제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리더십을 영도체계(제도)와 영도예술(행태)로 접근하고 있으며, 인격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별도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의 통치리더십은 인격, 제도, 행태라는 3차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25]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은 지도자와 권력엘리트, 대중과의 사회적 관계 및 상호작용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분석해야 할 것이다.

24) 박형중·최대석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2014).

25) 이기동, "통치리더십 전망", 『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국가안보전략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5.12.), p. 39.

chapter
03

숙청 사례로 본 김정은의 '공포정치'

1. 리영호 숙청과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1)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정치적 과제
   2) 리영호 해임과 군부의 역할 축소
2.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1)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과 장성택 숙청
   2)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의 홀로서기
3. 고위관료 숙청과 충성경쟁 유도
   1)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2) 북한식 '부패와의 전쟁'과 충성경쟁 유도
4.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권력엘리트 변동
   1) 김정은의 친정체제 구축
   2) 제7차 당대회 이후 엘리트 변동

chapter 03

숙청 사례로 본 김정은의 '공포정치'

1. 리영호 숙청과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1) 김정은의 권력승계와 정치적 과제

북한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빠르게 권력승계 작업을 진행해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바로 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2011.12.30.)해 김정은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했다.

2012년 4월에는 제4차 당대표자회(4.11.)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4.13.)를 연이어 개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와 '영원

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신설해 김정은에게 부여했다. 후계자 김정은이 당·정·군의 최고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북한은 빠르게 김정은 중심의 권력체계를 공식화, 제도화하면서 당 중심의 정상적 통치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을 뒷받침하는 지배연합의 견고함으로 정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26]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김정일과 비교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력승계의 속도와 압축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김정일의 건강 악화와 갑작스런 사망에 기인한다. 먼저 후계자 선정 및 후계체계 구축 과정을 보면, 김정일은 1974년 당 정치국원에 임명됨으로써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결정되었고, 6년간의 후계검증기간을 거쳐 1980년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에 선출됨으로써 공식적 후계자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

반면에 김정은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빠르게 진행된 후계자 선정 및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통해 2009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됐다. 이후

26) 이기동,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 1년, 김정은 리더십과 지배연합의 안정성", 「한반도 포커스」, 2013년 5·6월호(제23호); 정성임,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 기반: 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2012), pp. 31~55;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pp. 1~24 등을 참조.

21개월간 비공개 활동을 하다가 2010년 9월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 그리고 인민군 대장 등 공식 지위에 선출되었다. 즉, 김정은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된 당시 나이(28세)가 김정일(38세)에 비해 어렸고, 후계 검증기간도 6년이 걸렸던 김정일보다 21개월로 매우 짧았다.

공식 권력승계 과정도 마찬가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만 3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설정하고 공식 권력승계를 미루고 있었다. 김정일의 경우, 20년 정도의 지도자 수업 과정에서 당·정·군을 확실하게 장악해 나가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공식 직함이 없어도 통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릴 만큼 북한경제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만 3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강성대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그런데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당시 상대적으로 짧은 후계자 수업으로 리더십이 미약했기 때문에 체제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핵심 엘리트들에 의해 4개월 만에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 세습권력의 승계 과정은 '승계의 정당화'와 '승계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승계의 정당화는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새 지도자의 정치사상적 정통성뿐만 아니라 새 지도자의 정책적 업적을 요구한다. 승계의 제도화는 새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가진 새로운 간부들을 북한의 권력구조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새 지도자의 권력기반을 제도

적으로 구축할 것을 필요로 한다.[27]

승계의 정당화와 관련해 김정일은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절대화하고 주체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김정은은 지배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선대 수령의 권위에 의존하였다. 짧은 후계자 기간으로 인해 정책적 업적 또한 내세울만한 것이 없었다. 이에 '백두혈통'을 내세워 승계를 정당화해 나갔다. 특히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 하기'를 통해 인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6.28 방침'을 시범 운영하면서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자신의 업적 쌓기에 활용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권력이 제도화되려면 이를 새로운 사람들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과거 권력과 결탁한 사람들은 새로운 권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내정된 1970년대 중반부터 3대혁명소조를 중심으로 차기 권력의 기반을 만들어갔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후계자 기간이 짧았던 김정은 입장에서는 권력승계 이후 자신의 측근세력을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한편,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당 조직을 재건함으로써 당 기능 정상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이후 북한은 여

27)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pp. 3~5.

러 차례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앙당 조직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자 하였다. 당의 기능 강화는 군과 내각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여전히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김정일 시기와 달리 '선군'의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다. "다른 분야보다 군사를 중시한다."와 "정권 관리에 군대를 앞세워서 활용한다."는 선군의 두 가지 의미 가운데 후자의 퇴조 징후가 식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외화벌이 사업의 축소 및 내각으로의 이관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당 기능의 복원으로 군이 국정 전반을 주도하던 분위기가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28]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짧은 후계자 수업으로 인해 김정일에 의해 구축되었던 후견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점차 자신의 세력으로 대체해 나가야 했다. 또한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정은은 군을 시작으로 북한 권력층의 실세를 숙청하는 '공포정치'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작업에 착수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2) 리영호 해임과 군부의 역할 축소

2012년 7월 리영호 총참모장의 숙청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리영호 숙청을 김정은이 직접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수령제이다.

---

28) 최진욱 외,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54~55.

최고결정권은 오직 수령에게만 있고 당조직, 국가기관, 인민군대 등은 수령의 활용기구다. 즉, 당·정·군 위에 수령이 위치하는 이른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이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형식상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북한 전문가도 김정은의 권력과 권위가 유일적 영도체계를 감당할 만큼 성숙해 있다고 보지 않았다. 대체로 주요 국가정책을 김정은 혼자 최종 결정하기보다는 그를 후견·지지하는 세력과 또는 각 진영의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집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가정이 사실이라면 당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세력 및 빨치산 계승 세력이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리영호를 숙청하도록 김정은을 설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 연합뉴스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왼쪽) 모습 (2012.7.16.)

이미 북한은 리영호의 숙청에 앞서 2012년 3월에 '김정일의 영구차 호위 8인' 중 한 사람이었던 우동측 보위부 제1부부장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정은은 취임 3개월 여 만에 김정일의 영구차 호위 8인 중 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군부 과외교사로 불렸던 리영호 총참모장을 전격 숙청하였다. 당시 북한은 리영호를 신병관계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 정치국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였다.

리영호 숙청과 관련해서 2012년 4월에 열린 제4차 당대표자회 때 북한에서는 전례 없는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최근 NHK는 2년 전 군부대 산하 무역회사 간부로부터 입수한 군 조직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리영호가 김정은의 허가 없이 열병식에 참가한 군부대를 마음대로 움직인 이유로 숙청됐다고 보도했다.[29]

어쨌든 당시 리영호 숙청의 원인과 배경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들을 제기하였는데 대략 3가지 차원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당·군간 조직 갈등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다. 군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군이 보유한 각종 이권을 내각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군내 기관(총참모부와 총정치국) 간의 기관 갈등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다. 당료 출신 최룡해의 총정치국장 임명 또는 총정치국의 총참모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에 대한 총참모부 군인들의 불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셋째는 지배연합 내 엘리트 갈등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세 가지는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중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30]

---

29) "NHK "북 리영호, 김정은 허가없이 군부대 움직여 숙청"", 『연합뉴스』 2016년 6월 8일.

30) 이기동, "리영호 해임과 북한정치의 미래", 『월간 북한』 2012년 9월호, pp.59~60.

이러한 리영호의 숙청은 '김정일 애국주의'[31] 일색화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애국주의의 핵심 내용은 현지지도 강행군에 사망한 김정일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을 받들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관철해 나가고, 이를 통해 '김정은 유일령도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김정일 애국주의 일색화의 한 맥락인 인민대중제일주의, 즉 '다시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의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강화하고,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데 대하여"로 알려진 '6.28방침'을 시범 운영하였다. 6.28방침은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대략 농업분야에서는 협동농장 분조 규모의 축소 및 분조의 처분재량권 확대이고, 공장·기업소 분야에서는 공장·기업소가 독립적으로 생산목표량을 정하고 수익과 배분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32]

북한은 이러한 김정일 애국주의가 김정은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김정은에 대한 충성 강조로 연결시키고 있다. 즉 김정일 애국주의를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김정은은 김정일이 누렸던 모든 제도적 지위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수령의 리더십은 제도적 지위만이 아니라 인격적 지위가 뒷받침되어야 제

31) 2012년 5월부터 북한의 공식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은의 2012년 7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담화 이후 더욱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은은 김정일 애국주의의 핵심을 김정일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으로 정리했다.

32) 이기동, "리영호 해임과 북한정치의 미래", p.61.

대로 발휘된다. 김정은은 부족한 인격적 리더십을 보완하기 위해 유희장을 방문하여 풀을 뽑으며 간부들의 사업태도를 질타하고, 시골소년들을 평양으로 대거 불러들여 '김정은 선생님'이라 부르는 등 친인민적 행보를 연출하였다.

당을 중심으로 김정일 애국주의 일색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권도 축소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군부의 이권을 대변하고자 했던 리영호 세력이 숙청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오랫동안 당정과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해온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세력과 최룡해와 같은 빨치산 계승세력들이 결탁하여 당이 김정일 애국주의 노선을 제창하고, 외화벌이 등 군대의 상업 활동을 금지하며 이것을 내각으로 이관해 나간다. 이에 대해 리영호가 공식석상이나 비공식석상에서 반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문제 삼아 친인척 및 빨치산 계승세력들이 김정은을 설득하여 리영호를 숙청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리영호 숙청 이후 북한의 권력구도에는 일정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가 공고화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은 2인자 불허원칙 하에서 특정 일인보다는 여러 사람이나 집단에게 권한(권력이 아님)을 나누어 주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취하는 과도기적 지배구조를 구상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의 구상은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에서 가시화되었다. 김정일은 당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기용하여 장성택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 등 민간당료들에게는 대장 칭호를 수여하였다.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리영호의 실각은 김정일 구상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33]

또한 리영호 숙청은 군의 약화를 의미한다. 당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적 통제와 함께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하고, 당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을 보좌하여 정국과 정책을 주도할 세력이 분명해졌다. 다시 말해서 장성택(김경희)과 이에 연대한 최룡해가 북한의 대내외 전략을 틀어쥐고 나갈 지배연합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장성택 세력의 권력과 이권이 현저히 팽창하자 이를 견제하는 세력들에 의해 공격을 받기 시작했고, 권력의 분점을 허용하지 않는 수령제를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과 그 세력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2. 장성택 숙청과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1)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과 장성택 숙청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공식 출범 이후 당의 기능 강화를 통해 군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북한은 2013년 1월 전국

33) 이기동, "리영호 해임과 북한정치의 미래", p.63.

당세포비서대회를 대규모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당에 이어 지방당과 하급 당도 제대로 기능할 것을 독려하였다. 당 기능 강화는 2012년 7월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을 계기로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김정은은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등 군부 고위직의 잦은 인사 교체 및 계급 강등·원상 복귀 등 소위 '견장정치'를 통해 군부 통제와 함께 충성경쟁을 유도해 나갔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은 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대교체 작업을 진행해 나갔다. 북한은 젊은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정·군에 젊은 간부들을 등용해 나갔다. 당 권력엘리트의 평균연령이 70대 초반이던 정치국과 비서국에 50~60대 간부들을 배치하였고, 핵심 실무진에 40~50대 초반까지인 1960~70년대 생들을 등용하였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임명·신임했고 김정은 후계체제 및 권력승계에 기여했던 주요 인물들을 김정은 측근으로 점차 교체해 나갔다.[34]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발전노선도 제시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하 경제·핵 병진노선)'을 발표하면서, 국방비를 증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 노선은 핵무력 증강 의지를 강력하게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인민생활 향상' 기치를 2012~13년 모든 행사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해 선전해 나갔다. 김정은은

34) 이무철, "김정은 체제의 북한: 평가 및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2013년 평가와 2014년 전망』(한반도 리포트 2013/2014 제4호, 2013년 12월), p.119.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다시는 인민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 '내게 소중한 것은 총알보다 쌀알'이라면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인민생활 향상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민경제 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는 증대하지 않았고 눈에 띄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은 핵무력이 재래식 무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게 만들고, 그 절감된 예산을 인민경제에 투여하여 인민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인민경제보다는 핵무력 증강에 더 큰 비중을 둔 정책노선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미 북한은 자력갱생 노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위한 제한적인 대외개방을 시도해 왔었고, 김정은 정권도 이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을 통해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북한은 제도적 사회통제와 함께 시장에 대한 통제 완화로 체제 순응적 주민들의 시장을 매개로 한 생계활동을 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북한은 내적으로 정권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외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 핵무기 개발로 대응해 나갔다. 이미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고(2012.4.13.),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응하여 장거리 로켓 개발과 핵 무장력 강화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 및 행동을 고수해 나갔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주장하였다. 나아가 3월에는 '경제·핵 병진노선' 채택을 통해 핵무력 증강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또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재를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미 제국

주의 세력의 압박과 봉쇄'로, 이것이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하면서 이를 대내결속의 명분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12월 북한이 장성택 숙청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은 2013년 12월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키로 결정한 후, 12일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처형하였다.

북한은 정치국 회의에서 장성택을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고 비판하였다. 2013년 12월 9일자 『로동신문』을 보면, 장성택 숙청과 관련하여 "최근 당 안에 배겨있던 우연분자, 이색분자들이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적 시기에 당의 유일적 령도를 거세하려 들면서 분파책동으로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감히 당에 도전해 나서는 위험천만한 반당반혁명적 종파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12월 13일 『로동신문』을 보면, 장성택이 처형된 핵심적 이유는 군대를 동원해 군사정변을 꾀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장성택이 "심리 과정에서 '나는 군대와 인민이 현재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져지는 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품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정변의 대상이 바로 '최고령도자 동지이다'라고 만고역적의 추악한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 놓았다"고 밝히

고 있다. 이어 정변의 수단과 방법에 대하여 장성택은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을 리용하거나 측근들을 내몰아 수하에 장악된 무력으로 하려고 하였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장성택은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하였다.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 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 것으로 타산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 탈취 후 짧은 기간에 신정권이 외국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어리석은 망상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 신문이 밝힌 장성택의 죄는 '장성택 우상화' 시도, 직권 남용, 라선지구 토지를 외국에 파는 매국 행위, 부정부패 등이다. 신문은 장성택이 리용하, 장수길 등 불평 불만자들을 규합하여 자신이 있던 부서를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는 '소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성택이 "당에서 결론한 문제도, 당의 방침도 뒤집을 수 있는 특수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여 제놈에 대한 극도의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는 고의적이고 불순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하여 "수도건설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헝클어 놓아 몇 년 사이에 건설건재기지들을 폐허로 만들다싶이 하고 교활한 수법으로 수도건설 단위 기술자, 기능공 대렬을 약화시키였으며 중요 건설 단위들을 심복들에게 넘겨주어 돈벌이를 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여 심복들이 거간군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지

난 5월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서 라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문은 "2009년 만고역적 박남기 놈을 부추겨 수천억원의 우리 돈을 람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조종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신문은 장성택이 "정치적 야망 실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일삼았고, "2009년부터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 자료들을 심복졸개들에 류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돈을 망탕 뿌리면서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문은 "2009년 한 해에만도 제놈의 비밀 돈 창고에서 460여만€(유로)를 꺼내 탕진한 사실과 외국 도박장 출입까지 한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놈이 얼마나 타락, 변질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의 내용을 보면, 장성택과 그의 세력에 대한 숙청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과 그의 측근세력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기관 간 이권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장성택 세력에 의해 억눌러있던 정치세력의 반격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장성택 숙청 배경과 관련해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숙청이 아니라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비화된 사건으로 파악하였다. 장성택 숙청은 기관 간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시정 지시를 했을 것이고, 김정은의 이권 개입 조정 지시가 거부되자 유일영도체제 위배로 결론을 내려 숙청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입

장이었다.[35]

자료: 연합뉴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모습 (2013.12.13.)

2)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의 홀로서기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2013년 6월 19일 당,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를 모아놓고 김정은이 행한 연설의 내용이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라는 주제로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 연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계승하고 심화 발전시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내놓기로" 했다며 새로 개

35) 『연합뉴스』 2013년 12월 23일.

정한 10대 원칙의 전문을 소개하였다. 이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의 제6조 5항에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 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명시하였다. 이 조항은 장성택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키로 결정한 2013년 12월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비판에 적극 활용되었다. 당시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이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고 비판하였다.[36]

김정은 입장에서는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성택의 반대 세력들, 특히 군부와 당 조직지도부는 장성택을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의 위반 및 반역행위를 꾸민 종파분자로 몰아갔고,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권 갈등 및 장성택 측근세력의 월권 문제가 누적된 상황에서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세력들은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활용하여 장성택 제거를 위한 치밀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 및 강력한 군사도발로 강행해 나가면서 장성택의 활동도 상당히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2013년 11월 20일 진행한 제2차 보위일꾼대회가

36) "김정은 체제의 북한: 평가 및 전망", pp.115~116.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한 언론은 이 대회가 1993년 첫 개최 이후 20년 만에 열린 대회로, 보위업무 담당자들을 대거 한자리에 모이게 한 건 장성택과 그의 세력을 제압한 직후 김정은이 보위부문 간부들을 격려하고 충성 서약을 받는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대회가 열린 시점이 2013년 12월 3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장성택의 최측근인 이용하 당 행정부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 등 2명의 공개처형이 이뤄졌다고 지목한 11월 하순과 겹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대회 주석단에 김정은을 중심으로 세 명씩 좌우로 포진해 있던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영철성 군 상장, 조경철 상장, 김수길 중장,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 6명이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37)]

또한 이 언론은 김정은이 보안일꾼대회를 마친 후 동계스포츠 시설과 군분대 참관을 위해 삼지연에 방문했는데, 실제로는 삼지연에 있는 특각(전용별장)에서 장성택 숙청 이후의 후속대책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보위일꾼대회에 참석한 김원홍 보위부장과 황병서 당 부부장이 드러난다. 또 김양건 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김정은 시대 들어 부상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박태성·김병호·마원춘 당 부부장 등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토대로 이 언론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는 보위일꾼대회 주도세력과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 직전 열었던 백두산 삼지연 회의 멤버(삼지연 그룹)가 이끌 것으로 전망하였다.[38)]

37) "최룡해·김원홍 포함 보위일꾼 6인방이 숙청 주도", 『중앙일보』 2013년 12월 14일.

38) "최룡해·김원홍 포함 보위일꾼 6인방이 숙청 주도", 『중앙일보』 2013년 12월 14일.

이를 종합해 보면 김정일 사망 이후 장성택의 권력과 이권이 현저히 팽창했다. 리영호 숙청을 주도했던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친인척 세력과 빨치산 계승세력의 연합은 장성택 세력의 득세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다. 장성택 세력의 득세에 대한 군부와 당 조직지도부 및 보안기구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들과 함께 빨치산 계승세력이 반격을 가하면서 김정은의 동의 또는 후원 하에 장성택 숙청이 단행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장성택의 반대파들은 과거 같으면 문제되지 않았을 '사소한' 사건들을 2013년에 '사건화'하여 결국 장성택을 처형하는 빌미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장성택 측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나갔다. 장성택 숙청은 북한체제의 특성상 권력의 분점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한 김정일의 측근 및 족벌에 대한 숙청을 통해 수령의 절대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리영호의 숙청과 군을 시작으로 한 당정의 세대교체, 그리고 장성택 숙청을 통해 김정은으로의 권력 집중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측근세력을 계속 색출하면서 국내외의 언론들은 김정은의 통치행태를 '공포정치'에 비유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자신의 후견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형식상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 정책을 김정은 혼자 결정하기

보다는 그를 후견·지지하는 세력과 또는 각 진영의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집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해 왔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권력구조를 '준(準) 유일영도 구조',[39] '제한적 일인지배체제' 또는 '단일성 과두제'[40] 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장성택 숙청을 통해 북한체제가 수령제 정치체제임을 확인시켜줌과 동시에 김정은의 '홀로서기'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 이후 최고지도자와 핵심엘리트 간 경계가 흐릿해지고 군림보다는 핵심엘리트가 최고지도자를 떠받들고 있는 모양이었지만,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최고지도자가 핵심엘리트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다. 장성택 숙청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히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유사한 생존을 위한 엘리트들의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과 정책경쟁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3. 고위관료 숙청과 충성경쟁 유도

1)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은 2014년 연 초부터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의 모습을 부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중대회에서 '김정일 찬양가'는 사라지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가 집중적으로 불리었고, 북한 매체에서 김정일의 사진이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2014년 2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

39) 최진욱 외,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pp.48~51.

40)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pp.9~13.

로 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여 전사회적으로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사상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당원과 노동자, 학생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김정은의 '백두혈통'과 '유일적 영도', '수령결사옹위' 관철을 위한 사상교양 강화가 연일 강조되었다.[41]

이와 함께 장성택 숙청의 후속조치로 '종파잔재 청산'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다. 그 결과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 비서, 리태남 내각부총리 등이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잦은 보직 변동과 계급 강등 등 군부를 대상으로 한 소위 견장정치와 함께 전체 간부에 대한 '공포정치'를 지속해 나갔다. 또한 당을 중심으로 한 당·국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해 나갔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도 새롭게 재편되어 나갔다.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정치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였지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백두혈통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고모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다. 김정은의 백두혈통과 최룡해를 중심으로 하는 빨치산 계승 세력, 황병서를 중심으로 한 당·군·테크노크라트 집단 등으로 구성된 '삼각편대'라는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42] 이와 함께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국가안전보위부와 당 조직지도부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기관은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기반이 되고 있다. 김정은은 이러한 공포정치를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하면서 자신

41) 김갑식,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8, 2014.12.24.), p.1.

42) 김갑식,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8, 2014.12.24.), p.3.

의 측근을 중심으로 한 친정체제를 강화해 나갔다.

북한은 해방과 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2015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나갔다. 북한은 2015년 2월 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과 색조각상을 중요기관들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해방과 당 창건 70주년을 대정치 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경축행사들을 성대히 개최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2월 1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의 유훈을 당의 지도적 지침으로 끝까지 관철할 것을 결의했다. 이 회의에는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뿐만 아니라 내각 부총리, 당 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 해당 부서 과장, 도당 책임비서들과 위원회·성·중앙기관·근로단체·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이 참가했다. 그리고 북한은 이 회의에서 당의 유일적 영도에 도전한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김정은이 적발 분쇄한 것을 언급하면서 숙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향후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여나갈 것을 강조함으로써 김정은의 숙청작업을 통한 공포정치가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었다.[43]

이에 따라 2015년 한 해에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공개처형한 것을 비롯해 고위 간부 60여명을 숙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부 2인자로 알려졌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공개처형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국정원은 2015년 5월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보고를 통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반역죄로 2015년 4월 30일경 공개 처형됐다는 첩보를

43) 이수석, "김정은, 공포정치와 당 기구 역할 강화", 『북한』 2015년 12월호, pp.24~25.

입수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 이후 숙청된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이다.

국정원은 현영철의 처형이 장성택 처형 때와는 달리 당 정치국 결정이나 재판절차 없이 체포된 지 2~3일 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양 강건종합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사포로 총살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처형 사유는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김정은 지시 수차례 불이행 혹은 태만, 김정은이 주재한 '군 훈련일군대회'(2015.4.24.~25.)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입수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영철 이외에도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등도 숙청 또는 처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김정은을 보좌한 측근 인물들이었다. 국정원은 김정은 측근을 포함한 핵심 간부들이 숙청 또는 처벌을 받으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공포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 간부사회에선 중대한 잘못이 없는데도 이견을 제시했거나 회의 중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숙청이 이루어지자 '책임 있는 고위직'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마원춘 국무위원회 설계국장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거론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밀착 수행하며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주요 시설 건설을 지휘한 인물로 김정은 체제의 '건축 브레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14년 11월 '순안공항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질돼 일가족과 함께 양강도 지역 농장원으로 배치됐다는 것이다.[44]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은 대외 군사협력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의 지시에 이견을 제시했다가 크게 질책을 받고 2015년 1월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은 2010년 1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모델링을 마친 묘향산 향산호텔에서 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할 때 동행하면서 당 제1부부장으로 처음 북한 공식매체에 등장했다. 이후 2013년 7월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김정은 체제에서 당 운영자금과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 실세로 활약했다. 그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면서 최측근으로 활동하다가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5년 3월 초 이후로는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45] 조영남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 대동강 쑥섬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의 설계에 대해 김정은에게 이견을 제시하고, 미래과학자거리 건설과 관련해서도 '전기부족으로 공사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가 2015년 2월 처형됐다고 한다.[46]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산림녹화정책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2015년 5월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건 부총리는 2005년 6월 남북장관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서울을 방문했던 인물로 2014년 6월 내각 부총리가 되었다. 또한 2014년 9월에는 당 조직지

44) 마원춘은 계급이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채 2015년 10월 8일 수해복구 작업을 벌인 나선시를 방문한 김정은을 수행하면서 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2015년 10월 8일.

45) 한광상은 2015년 3월 초 이후로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다가 8개월 만인 2015년 11월 20일 김정은의 현지시찰을 수행하여 복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복권", 『연합뉴스』 2015년 11월 20일.

46) "'김정은 공포정치'로 숙청당한 측근·고위직들", 『연합뉴스』 2015년 5월 13일.

도부 부부장이었던 김근섭도 부패 혐의로 공개 처형되었다고 전했다.[47]

그런데 현영철 처형과 관련해 당시 일각에서는 과연 처형이 사실이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2013년 장성택 처형 발표 5일 전부터 매체에 등장시키지 않았고, 2012년 해임된 리영호는 해임 발표 6일 후 모든 매체에서 삭제하는 등 숙청된 간부들에 대해서는 발 빠른 '삭제' 작업을 해왔다. 현영철의 처형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관행상 모든 기록물에서 모습이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영철 처형 사실이 알려진 당시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새 기록영화에서 처형됐다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을 삭제하지 않은 채 방영하였다. 이에 따라 현영철 처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48]

어쨌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이 사실이라면 처형사유나 방식 등을 볼 때,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의 간부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숙청과 총살이라는 충격요법과 함께 간부들에 대한 집중 감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리영호와 장성택 숙청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지만, 여전히 김정일 체제에서 성장한 권력집단과 시스템에 의존해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측근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와 맞물려 기존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47) "북한 김정은,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총살 처형", 『연합뉴스』 2015년 8월 12일.

48) 장용훈, "현영철 숙청, 김정은식 공포정치 어디로?", 『통일한국』 2015년 6월호, pp. 28~29.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의 2인자로 여겨졌던 최룡해도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원은 2015년 11월 24일 최룡해가 백두산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의 책임을 지고 11월 초 지방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49] 그런데 최룡해는 한 달 만인 2015년 12월 김양건 비서의 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어 복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50]

한편, 북한은 해방과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2015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 연금, 보조금, 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금을 수여하기로 하고,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전체 주민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기준으로 특별 격려금을 일괄 지급한 것은 정권수립 이래 처음이다.[51] 이는 김정은이 권력 엘리트들에 대해서는 공포정치로 충성을 유도하는 것에 반해, 일반주민들에게는 '인민사랑의 정치'를 통해 대중적 지지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10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당 창건 7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인민사랑'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49) "北 최룡해, 백두산발전소 붕괴 문책 지방농장 추방돼", 『연합뉴스』 2015년 11월 24일.

50) "北 최룡해, 김양건 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 『연합뉴스』 2015년 12월 30일. 최룡해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51) 이수석, "김정은, 공포정치와 당 기구 역할 강화", pp.29~30.

자료: 연합뉴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왼쪽 원안)의 모습(2015.5.13.)

2) 북한식 '부패와의 전쟁'과 충성경쟁 유도

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은 10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통해 2016년 5월초 제7차 당대회 개최를 발표했다. 북한은 36년 만에 개최하는 제7차 당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갔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환경이 북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현실이다. 더구나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다. 내부 경제상황과 북한 당국의 능력을 감안할 때 자신들이 주장하는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6년 5월 6일부터 9일까지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선포하였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기존 제1비서라는 직책을 폐지하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김정

은을 추대하였다. 김정은은 당 위원장직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 당의 최고 영도자'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그리고 당의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김정은은 당사업 총화보고에서 "현 시기 당 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주적"이라면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 조직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52] 김정은은 간부들에 대한 숙청과 처벌을 통한 공포정치를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당대회 이후 개최된 제13기 제4차 최고인민회의(2016.6.29.)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추대하였다.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대 체제 위기 속에서 당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선군정치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됐었다. 이러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고난의 행군' 극복을 위해 형성된 위기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복원하고 정상화하였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강조했듯이 당대회 이후에도 간부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다. 우선 당대회에 앞서 2016년 2월에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의 처형설이 언론에서 보도됐었다. 리영길 총참모장이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전격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리영길 총참모장이 2016년 2월 2~3일 당 중앙위원회·군당위원회 연합회의에 이어 8일

52) 『로동신문』 2016년 5월 9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 군민경축대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숙청 및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53] 그러나 리영길은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리며 건재를 과시했다.

통일부는 2016년 8월 31일, 2016년 7월경에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처형됐고,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이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휘도 혁명화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진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세불량을 지적받아 국가안전보위성의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반당 반혁명분자 그리고 현대판 종파 분자로 낙인찍혀서 7월 중에 총살 집행됐다는 것이다. 김영철은 고압적 태도를 보이고 무리하게 당 통일전선부 권한 확장을 추진하는 등 권력 남용이 원인이 돼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여 간 지방 농장에서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최휘는 선전사업에서 김정은의 지적을 받고 5월 말부터 지방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54]

2016년 10월에는 한 국내 언론이 7월 태영호 공사의 한국 망명 책임으로 유럽지역을 담당하는 궁석웅 외무성 부상이 지방 협동농장으로 혁명화 교육을 가고, 외무성 유럽 라인의 간부 4명이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보도했

53)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비리혐의로 이달 초 전격 처형", 『연합뉴스』 2016년 2월 10일. 그리고 2016년 2월 리영길 후임으로 리명수가 군 총참모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4) "北, 김용진 부총리 처형·김영철 통전부장 혁명화 조치",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다. 그러나 궁석웅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이 10월 16일 '명예손님' 신분으로 외교단 체육경기를 관람했다고 보도하여 외무성 부상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확인됐고, 일본의 교도통신은 정년퇴직으로 은퇴했다고 보도했다.[55]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 2015년까지 처형된 간부는 13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3명, 2013년 30여명, 2014년 40여명, 2015년 60여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6] 국정원은 2016년 10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2016년 들어 9월까지 64명을 공개처형했다고 보고했다.[57]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16년 9월 현재까지 약 190여명이 처형된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의 주요 핵심엘리트 숙청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통해 관료들의 절대 충성을 강요함과 동시에 관료들 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료들을 압박하고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55) "北 궁석웅, '명예손님' 신분으로 외교단 체육경기 관람", 『연합뉴스』 2016년 10월 16일. "교도통신 숙청설 北 궁석웅은 정년퇴직으로 은퇴", 『연합뉴스』 2016년 10월 17일.

56) "北김정은 '공포정치' 언제까지 계속되나…잇단 처형·혁명화",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57) "국정원 "김정은, 신변불안으로 독극물·폭발물 탐지장비 도입", 『연합뉴스』 2016년 10월 19일.

〈표 1〉 북한의 주요 핵심 엘리트 숙청(처형): 2012~2016. 9 현재

숙청 인물	숙청(처형) 일자	숙청(처형) 사유
리영호 (군 총참모장)	2012. 7. 15. 해임	김정은의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취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 추정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2013. 12. 12. 처형	국가전복음모, 장성택 우상화,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경제부문 전횡, 부정부패 등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2015. 4. 30. 처형 추정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김정은 지시 수차례 불이행 혹은 태만 등
최영건 (내각 부총리)	2015. 5. 처형 추정	산림녹화정책과 관련 불만 표출 및 성과 부진
김용진 (내각 부총리)	2016. 7. 처형 추정	반당 반혁명분자, 현대판 종파 분자
리용하 (당 제1부부장)	2013.11. 처형	반당 혐의
장수길 (당 부부장)	2013. 11. 처형	반당 혐의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2015.1. 처형 추정	김정은의 지시에 이견 제시

출처 : 국정원 국회보고자료 등

※ 조영남(국가계획위 부위원장), 김근섭(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숙청된 것으로 알려짐.

※ 리영길(군 참모총장), 한광상(前 당 재정경리부장), 마원춘(국무위원회 설계국장), 최룡해(정치국 위원)는 최초 숙청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후 재등장하였음.

4.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권력 엘리트 변동

1) 김정은의 친정체제 구축

김정은은 관료들에 대한 숙청과 처벌을 활용한 공포정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력엘리트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실세로 예상되었던 김정은 후견그룹의 숙청 및 실각이 이루어졌다. 그 자리를 소위 삼지연 그룹으로 불리는 김원홍, 황병서, 마원춘, 한광상 등이 대신하고 있다.

운구차를 호위했던 인물들 가운데 군부실세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이 2012년 7월 전격 숙청됐다. 리영호를 비롯해 김정일 운구차를 호위했던 김정각, 김영춘, 우동측 등 '군부 4인방'은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가장 먼저 숙청되거나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정은은 이어서 2013년 12월에 자신의 고모부이자 김정일의 사망 이후 북한 2인자로 군림하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했다. 결국 운구차를 호위했던 인물들 가운데 80대 고령인 김기남과 최태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숙청당하거나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정은의 숙청작업은 군에서 시작해 당과 국가기구, 그리고 자신의 측근 세력에게도 진행되었다. 장성택의 숙청에 앞서 리용하 당 제1부부장과 장수길 당 부부장도 비리 등 반당 혐의로 처형했다. 그리고 2015년에 최영건 내각 부총리 처형설, 2016년 김용진 내각부총리의 처형설이 제기되었다. 또한 김정은의 건축 브레인으로 알려진 마원춘 국장이나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광상은 좌천됐다가 다시 복권되었다. 또한 최룡해도 혁명

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엘리트 변동에 따라 백두혈통을 대표했던 장성택과 김경희를 대신하여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중심으로 형 김정철, 이복누이 김설송 등이 권력전면에 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장성택 숙청 이후 빨치싼 계승 세력을 대표하는 최룡해에게 권력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김정은을 후계자로 옹립했던 공신들을 대표하는 황병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연대세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와 당 조직지도부 중심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부선발기준에서 이념과 더불어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내각은 박봉주 총리 임명과 더불어 대부분의 상들을 해당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온 전문가 그룹으로 포진시켰다. 제7차 당대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자료 : 연합뉴스
김정일 장례식 운구차를 호위하는 8인 모습(2011.12.29.)

2) 제7차 당대회 이후 엘리트 변동

이러한 김정은 시대 이후 엘리트 변동은 2016년 5월에 있었던 제7차 당대회에서 있었던 핵심부서의 구성원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은 김정은을 포함해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등 5명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제적 국가수반인 김영남, 당·정·군 정책 지도·집행 총괄 책임자인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로 구성된 것이다. 2012년 4월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5명으로 구성되었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해임과 최영림 전 총리의 퇴진으로 3명으로까지 줄어들었으나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제7차 당대회 개최 전까지만 해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중 내각 엘리트는 박봉주 총리와 로두철 부총리뿐이었다. 그런데 제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이었던 박봉주가 상무위원으로 승진하고, 로두철 부총리도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임철웅 부총리와 리용호 외무상이 새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됨으로써 정치국에서 내각 엘리트의 숫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박봉주 내각 총리의 정치국 상무위원 승진을 비롯한 내각 엘리트들의 약진은 북한이 강조하는 '자강력 제일주의' 추진을 위해 '내각책임제'를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내각 엘리트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외교 엘리트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제7차 당대회 개최 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외교 엘리트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강석주 당중앙위원회 국제비서뿐이었다. 그런데 제7차 당대회에서 강석주가 건강악화로 퇴진하고 후임으로 리수용 전 외무상이 국제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제부장에 임명되어 과거 강석주보다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리수용의 후임으로 외무상에 임명된 리용호 전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되어 정치국에서 외교 엘리트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오랫동안 내각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직책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이는 제7차 당대회 이후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부선발 및 배치에 있어 이념과 함께 전문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연합뉴스
북한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연설하는 모습(2016.5.8.)

〈표 2〉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구성원의 변화[58]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013.3.31.)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2015.2.18.)	제7차 당대회 (2016.5.9.)
상무위원 겸 위원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영호	김정은 김영남 최룡해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위원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김영춘 김국태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박봉주 장성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국태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박봉주 김기남 최룡해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김양건 곽범기 오수용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양형섭 로두철 박영식 리명수 김원홍 최부일
후보위원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태종수 김평해 문경덕 주규창 김락희 곽범기 김창섭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오극렬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주규창 곽범기 김창섭 문경덕 리병삼 로두철 조연준 현영철 김격식 최부일	김평해 최부일 로두철 조연준 현영철 리영길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구성원 수	32명	30명	21명(추정)	28명

58) 정성장, "7차 당대회 평가: 권력과 파워 엘리트 변동의 특징" 『김정은 체제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과제』(2016 현대북한연구회·한국평화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5.18.), p.19.

이밖에 핵·군사 분야 엘리트의 건재 및 승진이 눈에 띈다. 정치국 위원으로 정찰총국장 출신 김영철, 핵미사일 총책이라 불리는 군수공업부장 리만건, 인민무력부장 박영식 등이 선출되었다. 후보위원으로는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이 선출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는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리영길, 서홍찬이 포진하였다.

현실 권력구조 측면에서 북한 엘리트 내 실권은 정무국에 배치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 부장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무국 부위원장들이 정치국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전직 비서국 책임비서들이며, 전문부서의 부장 역할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무국과 전문부서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파워엘리트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당사업 및 정책 관철을 담당할 것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개편을 보면, 박봉주 내각 총리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선출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내각과 군의 갈등을 당을 중심으로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새로 조직된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군종.병종 사령관(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공군 및 반항공군 사령관,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리용주 해군사령관)이 모두 탈락하였다.

〈표 3〉 김정은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의 변화[59]

	제4차 당대표자회 (2012.4.11.)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2013.8.25.)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2014.3.16.)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2014.4.26.)	당중앙 군사위 확대회의 (2015.2.23.)	제7차 당대회 (2016.5.9.)
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부위원장	최룡해 리영호	최룡해	최룡해			
위원	김정각 김영춘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경성 장성택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	장성택 리영길 장정남 김영춘 변인선 김원홍 주규창 김경옥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김수길) (서홍찬)	리영길 장정남 김영춘 변인선 김원홍 (주규창) 김경옥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김수길 서홍찬 (황병서)	황병서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원홍 김경옥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서홍찬 박영식	황병서 현영철 리영길 김원홍 서홍찬 김춘삼 박영식 리병철 김명식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최영호 김락겸	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
구성원 수	19명	19명(추정)	19명(추정)	16명(추정)	16명(추정)	12명

59) 정성장, "7차 당대회 평가: 권력과 파워 엘리트 변동의 특징" 『김정은 체제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과제』(2016 현대북한연구회·한국평화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5.18.), p.24.

정치국과 정무국 등 상층 정책결정기관의 엘리트들은 지속성있는 노·장 중심의 안배를 한 반면, 2015년말 기준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절반 이상 교체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235명 중 106명(45.1%) 재선, 129명(54.9%)은 신규 선출이었다. 2010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발표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124명, 후보위원 105명과 비교할 때, 규모 변화는 미미하나 기존 인물에서 교체되어 새로이 신임된 인물이 156명이고, 직위가 유지된 인물은 위원의 경우 52명, 후보위원의 경우 27명 수준이다.[60]

한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43번째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여정이 현재 부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요직위 선출을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한편 '백두혈통'으로 지금처럼 다양한 막후역할을 위한 운신의 폭 확대가 고려되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제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엘리트 변동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노장청 배합과 단계적 세대교체를 통해 안정 속의 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최상층부의 안정화, 상층부의 친위화, 중상층부의 물갈이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61] 이는 지난 5년간 진행된 숙청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내각 엘리트의 약진 및 박봉주의 당중앙군사위원회 진입

60) 박영자, "7차 당대회를 통해 본 조선노동당 지도체계 및 엘리트 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제13차 KINU 통일포럼 자료집, 2016. 5. 16), p.41.

61) 김갑식, "제7차 당대회 의미와 특징", 통일연구원,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제13차 KINU 통일포럼 자료집, 2016. 5. 16), p.14.

이다. 이번 당 인사에서 내각총리 박봉주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것 외에 4명의 내각 엘리트들이 당 핵심간부로 선출되었다. 이는 '자강력 제일주의', '내각책임제' 실시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을 당 차원에서 조율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핵·군사 분야 엘리트의 건재 및 승진이다. 이는 핵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 과반수 이상(54.9%) 교체다. 신임 위원·후보위원들의 이력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 흐름으로 보아 상당히 젊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 당규약 결정서를 통해 "청년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울 것"이라고 강조하고, 당사업총화에서 반관료주의, 반부패 투쟁을 강조한 것을 보면, 향후 간부들에 대한 검열과 감시 및 숙청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를 단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7차 당대회 이후 형성된 권력 엘리트 집단 간 정책노선, 최고지도자와의 관계, 권력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상호협력과 경쟁, 갈등과 분열 등이 나타날 것이다. 과연 김정은이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chapter
04

김정은의 통치리더십 성격과 한계

1.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공포정치'
   1) '인민사랑의 정치':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 강요
   2) 김정은 '공포정치'의 의도와 효과
2.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특징
   1) 체제 특성과 리더십: 권위주의적, 철인적 리더십
   2) 김정은 리더십의 형성
   3)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
3.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한계

chapter 04

김정은의 통치리더십 성격과 한계

1.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공포정치'

1) '인민사랑의 정치':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 강요

김정은은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펼치고 있지만, 인민대중들을 대상으로는 인민 친화적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통해 친인민적 지도자로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인민 속으로'를 이미지화하여 개방적인 행동과 친화력을 보여주면서 인민들의 지지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62]

62)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2014), pp.187~188.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와 10월의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 김일성의 생전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에 인격적 리더십 구축을 위해 '혈통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만경대 혈통'과 '백두의 혈통'이라는 표현을 통해 김정은의 권력세습이 혈통적 정통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북한은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하기'라는 상징조작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김정은의 취약한 리더십을 보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63]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은 모습만 할아버지 김일성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인민 속에서 스킨십을 나누면서 인민 친화적 행보를 보인 것까지 따라 하기 시작했다. '은둔형'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와 같은 '공개형' 지도자의 모습을 김정은이 보인 것이다.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비롯한 공개 활동에서 은둔형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 외부에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아버지의 모습과 달리 할아버지처럼 공개적, 개방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민들에게 '친인민적'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다. 김정은은 2012년 김일성 출생 100주년 행사에서 해외 언론을 초청하고 대중연설을 하였으며,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에 참관하는 모습을 북한주민과 외부세계에 보여줌으로써 공개형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64]

63) 김일기·이수석,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과 리더쉽", 『북한』 2014년 6월호, pp.110~11.

64)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할아버지처럼 매년 1월 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활동 모습을 통해 '친인민적' 지도자의 모습도 더욱 부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새 바람이 분다/제1위원장의 령도술"이라는 연재기사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민심을 추동력으로 하는 이민위천 사상의 실천"으로 강조하고 있다.[65] 북한은 김정은의 북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로 상징조작 하여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이 고아, 무의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자애로운 지도자'로 부각하는데 공을 들였고, 정성택 처형 이후 '어린 지도자'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세대교체의 정당화를 내세우기 위해 김정은의 '어림'을 '시대의 젊음'으로 포장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선전활동을 강화하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20년이나 앞당겨 김정은에게 '아버지' 호칭을 일반화시켜 대중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 이러한 인격적 러더십의 강화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을 김일성, 김정일과 동격화시켜 명실상부한 '3대 수령'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것이다.[66]

북한은 김정은의 인민 친화적 행보를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정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고 정치의 본질이며 최고원칙과 최고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다.[67] 북한은 이

65) 김일기·이수석,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과 리더쉽", p.111.

66) 김갑식,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8, 2014. 12. 24.), p.2.

67) "정론: 최우선, 절대적으로", 『로동신문』 2012년 6월 2일.

러한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김정일애국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이미 선대 수령들이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를 펼쳐왔으며, 그것의 발로가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인민관'은 인민중심의 철학관으로 인민의 이익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풀어간다는 것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정신이 김정일 애국주의인데, 김정은 자신의 인민관이 김정일과 일치한다는 것이다.[68] 이러한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2013년 1월 있었던 당 제4차 세포대회 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바로 자신의 정치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69]

인민의 이익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인민을 위한 정치행보를 보이는 김정은에 대한 북한의 찬양 논리는 결국 북한주민에게 김정은에 대한 절대충성의 강요로 연결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가장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력사의 생눈길을 진두에서 해치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정녕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주장한다.[70]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김정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

68)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p.188.

69)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p.189.

70) 사설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민주조선』 2013년 1월 3일, 위의 글, p.189에서 재인용.

로운 100년대를 승리의 년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일심단결은, "우리 수령, 우리 당이 가장 위대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정치체제가 제일이라는 사상과 신념으로 굳게 뭉친 것"을 의미한다.[71]

이러한 인민들의 일심 단결에 대한 촉구는 수령 결사옹위 정신으로 연결된다. 북한은 김정은을 목숨으로 결사 옹위하여 김정은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에 받들어 모시고, 온 사회에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사상과 노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유일적 영도 밑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일심단결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 실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 하고 있다.[72]

김정은의 인민대중 친화적 모습의 구현은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근거한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로, 이는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 인민대중의 지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연결된다. 이는 인민대중을 위한 유희장 건설 현장에 현지지도를 나간 김정은이 부실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면서 해당 관료를 질타하는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저해하는 종파분자,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

71) 김경철,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식 사회주의정치체제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중요요인", 『철학연구』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p.19. 위의 글, p. 188에서 재인용.

72)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p.189.

자료: 연합뉴스.
김정은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소년단 창립 70돌 행사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2016.6.7.)

이러한 주장은 제7차 당대회에서도 재강조 되고 있다.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에서 당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특수화, 우상화를 배격하고 정실안면 관계에 따라 사람문제를 처리하거나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한다."면서 반종파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했다.[73] 또한 김정은은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주적》"이라면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본태를 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

73) 김정은 "당 사업총화 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9일.

들의 운명을 지켜주며 인민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과 조직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4]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료들에게 공포심과 함께 숙청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이 종파분자나 관료들의 세도나 관료주의, 부정부패로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에 대한 수령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인민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자료: 연합뉴스
김정은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방문해 여직원들과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2016.1.28.)

74) 김정은 "당 사업총화 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9일.

2) 김정은 '공포정치'의 의도와 효과

국내외에서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통치 리더십과 권력(또는 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성택, 현영철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처형과 관련해 그 처형 방식에 대한 첩보에 근거해 숙청의 잔인함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위간부들에 대한 숙청과 사형이 어린 자신에 대한 간부들의 충성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김정은 통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권력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독재자들에게 공포정치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공포정치는 심리적 공포와 위축감을 조장함으로써 잠재적 반대세력을 억누르는 한편 밑으로부터의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동기는 그 원인과 맥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공포정치의 동기는 정통성의 부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통치력의 한계에 직면한 지도자의 자포자기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 잘 짜인 권력 안정화의 각본에 의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떤 동기에서 공포정치를 추진하는 것일까? 이를 추론해 보면, 북한은 이미 확립한 유일영도체계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입각해 김정은의 권력세습과 권력의 공고화를 제도적으로 제7차 당대회를 통해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에 형

성된 자신의 후견세력을 자신에게 절대충성을 할 수 있는 측근세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시대에 형성된 후견그룹 세력의 영향력이 당·정·군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숙청 및 검열과 통제는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또한 이것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선전함으로써 인민들로부터 김정은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한편, 김정은의 정당성을 침식할 만큼 김정은이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포정치를 실시한 동기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 경제가 더 나빠졌다는 징후도 포착되고 있지 않다.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지도 더 두고 볼 문제라 할 수 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정통성의 부족이나 통치력 한계에 직면한 김정은의 자포자기적인 선택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정권의 불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첩보에 의한 잔인성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날 뿐 선대 수령에서부터 이러한 숙청과 공포정치는 이미 존재해 왔다는 점이다. 김정일 시대였던 1997년 북한은 당시 농업담당비서였던 서관히를 공개처형한 것을 시작으로 그 다음해에 이르기까지 고위급 50여 명을 공개처형 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에 이르기까지 2,000여 명 이상의 중앙당 중견급 간부들이 숙청되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1997년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3년상 직후 '선군정치'를 필두로

한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확립하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김정일 시대의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는 2000년대 초·중반 이후 다소 진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은 김정일의 3년 상을 2014년 말에 마치고, 2015년 육성 신년사를 통해 자기의 정치적 색채를 정립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김정은의 여건과 매우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75] 김정일의 경우 정권의 공식출범과 함께 '고난의 행군'의 책임 전가와 함께 당시 고위급 인사의 탈북과 관련해서 핵심 엘리트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숙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김정은의 경우 자신의 측근세력을 지배연합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숙청이 단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숙청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선대수령과 김정은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김일성은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적과 반대파를 숙청해 나갔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일영도체계가 확립된 이후에도 주요 엘리트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일정 기간 후에 권력 일선에 복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광을 들 수 있다. 반면에 김정일 시대의 숙청은 장성택 등과 같이 숙청 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정치일선에서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했다. 반면에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동안 당·정·군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첩보에 근거하면 그 처형방식이 훨씬 잔인해진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기반 형성 과정, 지지기반, 그리고 개인의 카리스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75) 차두현, "김정은식 공포정치 하의 북한: 안정화 마무리를 위한 극약처방인가, 불안정 시작의 서곡인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2015. 5. 15.), p.3.

할 수 있다.[76]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제7차 당대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봤듯이 김정은 당 사업 총화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당·정·군에 잔존하고 있는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 등의 파벌을 색출·제거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정·군 최상층부터 최말단까지 계속적인 검열과 통제를 통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관료들을 척결하고, 이 자리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로 대체함으로써 이들을 김정은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김정은 통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최근 고위급 탈북인사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동요가 확산되고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중후반의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과 비교했을 때, 엘리트 계층의 동요나 정권의 불안정성이 그리 크다고 볼 징후를 발견할 수가 없다. 1997년 당시 황장엽 비서의 탈북에 비견될만한 고위급 탈북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최근 진행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은 북한의 반종파투쟁을 비롯한 반세도, 반관료주의, 반부정부패 척결운동, 소위 북한식 '부패와의 전쟁'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보다는 안정성이 강

76) 차두현, "김정은식 공포정치 하의 북한: 안정화 마무리를 위한 극약처방인가, 불안정 시작의 서곡인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2015. 5. 15.), pp.3~4.

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구조의 위계성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상 핵심 엘리트 내의 반대세력의 조직화도 쉽지 않다. 더구나 핵심 엘리트들은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위협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유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지배연합 구성 이후 지배 엘리트 집단 간 정책노선, 최고지도자와의 관계, 권력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상호협력과 경쟁,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진행될 때 이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 공포정치의 일상화는 권력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선대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관리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유도해 나갔다. 만약 김정은이 견제와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수령에 대한 도전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으로 공포정치를 활용한다면, 지배 엘리트 내의 동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배연합 내 세력의 잦은 교체나 2인자 그룹에 대한 의심은 자기 권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포정치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잠재적 반대세력을 견제하고 순치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모든 엘리트들을 무사안일 혹은 복지부동의 위치에 빠지게 만든다. 즉, 지도자를 분노시킬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체제는 중요한 위기에 대한

적응력이 심각하게 결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이 중·장기적인 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공포정치를 종식하는 한편, 유능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2인자 그룹 형성과 이들을 중심으로 지배연합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77] 결국 김정은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어 나갈 것인가가 향후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특징

1) 체제 특성과 리더십: 권위주의적, 철인적 리더십

북한은 리더십을 영도체계(제도)와 영도예술(행태)로 접근한다. 이와 함께 인격적 리더십을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기반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우선 여기서는 북한의 주장하는 리더십의 논리에 따라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형성과정을 제도적 리더십, 인격적 리더십, 행태적 리더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78]

제도적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약식 당대회격인 2010.9. 제3차 당대표자회와 2012.4.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만들어진 과도기적 권력구조를 청산하고 김정은의 제도적 리더십을 완성하였다.

---

77) 차두현, "김정은식 공포정치 하의 북한: 안정화 마무리를 위한 극약처방인가, 불안정 시작의 서곡인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2015. 5. 15.), p.6.

78) 이기동, "통치리더십 전망", 『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국가안보전략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5.12.), p.40 참조.

당 제1비서라는 호칭 자체가 과도기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정상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김정은에 제도적 권력과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을 당의 최고수위인 신설 당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당·국가·군대의 최고영도자'로 호칭하였다. 김정은은 수령으로서의 권위와 최고지도자로서의 권력을 부여받고 강화하는 계기로 제7차 당대회를 활용한 것이다.

인격적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제7차 당대회는 김정은의 '만수무강 축원' 분위기 조성 등 충성의 경연장 모습을 보였다. '후계자'에서 명실상부한 '수령'으로(인격에서 신격으로), 경로의존에서 경로창출의 중심체로(계승에서 발전으로), 그리고 김정일의 혁명역사화(영원한 수령)와 김정은의 혁명주체화로(유훈에서 독자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행태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김정은이 노회한 권력엘리트들을 자유자재로 통솔하는 모습을 시현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경외심을 주민들에게 투사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88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78세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에게 하대하듯 손짓으로 착석을 권유하는 모습이나 조용원 부부장이 무릎을 꿇고 보고하는 장면 연출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행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리더십을 제도적, 인격적 리더십으로 완성한 상태에서 행태적 차원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리더십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기존 김정은 리더십 연구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에 맞추어 추론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을 근거로 북한이 향후 실용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였다. 이것은 모란봉 악단의 여성 단원들의 파격적인 의상이나 노래 선곡 등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2012년 '6.28 방침'이나 2014년 '5.30 담화' 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 하기'를 보면서 젊은 나이, 부족한 자질 등으로 선대 수령의 권위에 의존한다는 점, 즉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백두혈통에 근거한 정당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수령의 자질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김정은의 '견장정치'를 보면서 그의 즉흥성을 지적하거나, '공포정치'를 보면서 어린 자신을 간부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잔인한 방법으로 숙청과 처벌을 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을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을 근거로 군사주의적 모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를 종합해 본다면, 김정은은 즉흥적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며,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잔인한 방법의 사용을 서슴지 않으며, 군사주의적 모험을 걸만큼 대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나이와 아직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점에서 선대 수령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김정일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김정일의 개인적 특성으로 지적된 것과 대동소이하다. 김정일은 은둔형 통치스타일로 개인적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 지적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최근 김정은의 방탕한 생활에 대한 주장은 김정일에게도 마찬가지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개인의 능력, 역량, 통찰력 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권력엘리트, 대중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권력을 둘러싼 상호작용의 특정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성상 추론에 의해 분석이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우선 선대 수령과 김정은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리더십의 특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도자는 그 국가의 정치체제, 지배이데올로기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체제의 지도자와 사회주의체제의 지도자 또는 독재 및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의 리더십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특성상 북한 지도자의 리더십은 민주적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모든 목표와 정책이 지도자 개인에 의해 결정되고, 구성원들이 오직 지도자의 명령과 지시에만 따르도록 강요됨으로써 지도자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결정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특성은 김정은뿐만 아니라 김

일성, 김정일의 리더십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79]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또 다른 리더십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철인적' 리더십[80]이다. 철인적 리더십은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명한 자가 통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형태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모든 권력을 독점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혁명적 수령관'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러한 혁명적 수령관의 논리에 따르면 수령의 지시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즉, '수령의 무오류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수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정책집행과정 또는 정책집행 결과가 의도한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이 수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령의 지시와 교시는 무오류성을 가진 것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다만 수령의 지시와 교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잘못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지시를 왜곡하고 잘못 집행한 관료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이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이루어진다. 결국 수령의 교시와 지시에는 그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북한과 같은 수령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는 수령 지위를 둘러싼 권력투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주요 기관과 엘리트

79) 김일기·이수석은 김정은의 리더십 특성 가운데 권위주의적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대 수령의 리더십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김일기·이수석,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과 리더쉽", p.111.

80) 한 연구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철인왕' 리더십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나, 김정은에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동북아연구』 제29권 1호(2014) 참조.

개인의 권력과 이권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쟁은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의 형태로 진행된다. 결국 이러한 조건에서 수령이 엘리트, 대중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가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설득하는가가 중요해진다.

2) 김정은 리더십의 형성

김정은은 백두혈통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했을 것이다. 그는 성장과정에서 북한 고위층과 교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과 격리되어 특별 교육을 받고,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다. 아버지인 김정일은 짧은 외국 여행을 제외하고는 외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한 경험이 없는 반면, 김정은은 외국에서 몇 년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가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김정은의 외국생활 경험은 그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유학 이후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전문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 북한 주민들과의 삶과 괴리된 그의 풍족한 삶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을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주민생활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아버지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전성기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낸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북한의 쇠퇴기에 청소년기를 보냈다. 북한의 경제난이 어린 김정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정일과는 달리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81)]

81) 임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pp.20~22.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친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아버지 김정일과 비교해보면 권력승계의 속도와 압축성에서 차이가 난다. 김정일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6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쳐 공식 후계자로 대내외적으로 공표되었다. 반면에 김정은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빠르게 진행된 후계자 선정 및 후계체제 구축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후계검증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공식 권력승계 과정도 마찬가지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만 3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설정하고 공식 권력승계를 미루고 있었다. 김정일의 경우, 20년 정도의 지도자 수업 과정에서 당·정·군을 확실하게 장악해 나가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공식 직함 없이도 통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릴 만큼 북한경제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만 3년의 유훈통치 기간을 둘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강성대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그런데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당시 상대적으로 짧은 후계자 수업으로 리더십이 미약했기 때문에 체제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핵심 엘리트들에 의해 4개월 만에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마무리한 것이다.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고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새 지도자의 정치사상적 정통성뿐만 아니라 새 지도자의 정책적 업적을 쌓아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측근세력을 북한의 권력구조에 배치시켜 이들로 하여금 새 지도자의 권력기반을 제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짧은 후계자 기간으로 인해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고 북한 권력구조에 배치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김정은은 백두혈통을 내세우면서 선대 수령의

권위에 의존하는 가운데 김정일에 의해 구축된 후견세력의 도움을 받아 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김정일은 당 기능 정상화를 통한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 복원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북한은 여전히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권 관리에 군대를 앞세워 활용한다는 논리는 퇴보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 기제였던 선군정치의 의미를 퇴색시켜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김정은의 제1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군 외화벌이 사업의 축소 및 내각으로의 이관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당 기능의 복원으로 군이 국정 전반을 주도하던 분위기가 상당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짧은 후계자 수업으로 인해 김정일에 의해 구축되었던 후견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점차 자신의 세력으로 대체해 나갈 수밖에 없다. 또한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를 정상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비대해진 군부의 영향력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이에 김정은은 북한 권력층의 실세를 숙청하는 '공포정치'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작업에 착수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업적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를 활용해 나갔다.

또한 김정은은 김일성 따라 하기를 통해 인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인민생활 향상' 기치를 모든 공식매체를 통해 선전해 나갔다. 인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우선적인 과제로 여기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친근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

키려고 한 것이다. 김정은도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 향상이 급선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에게 물려받은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조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대외적으로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 상태이고, 대내적으로 1990년대 이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체제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개혁개방은 체제붕괴 및 남한으로의 흡수통일로 연결될 위험이 존재한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처럼 정책적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을 선택하였다. 핵무장을 통해 핵협상의 의제를 변경시켜 우선적으로 핵군축과 평화협정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2013년 3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한다.

김정은은 대내적으로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 김정일에 의해 구축된 후견세력을 숙청하면서 새로운 권력구조를 창출해 나갔다.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이 장성택의 숙청과 이로 인한 고모 김경희의 정치적 위상 추락을 대체하면서 백두혈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혁명 후계 세력과 황병서를 중심으로 한 당·정·군의 테크노크라트 집단으로 지배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뒷받침하는 국가안전보위성과 당 조직지도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김정은은 이러한 공포정치를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측근을 중심으로 한 친정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충원된 엘리트들은 자신을 선택한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보답할 것으로 예상되며, 살아남은 엘리트들은 불만보다는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간부들에게 엄격한 모습과 대비되는 인민 친화적 행보를 계속하면서 인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민을 위한 정책을 수령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간부들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이들의 부정부패를 들춰내면서 인민들에게 수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입각한 인민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가 북한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시장경제활동에서 목격하는 간부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엄격히 처벌하는 모습을 통해 현상유지를 통한 지지획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생계유지를 위한 시장경제활동을 통제하지 않는 한 기존처럼 형식적 순응의 형태로 수령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포하였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조건으로 인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휘황한 설계도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 형성된 위기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상적인 체제를 가동시키게 되었다.

3)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

지난 5년간 김정은이 권력엘리트, 대중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모습에 대한 추론과 정책추진 내용을 볼 때 김정은 리더십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대 수령의 리더십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이며 '철인적' 리더십이다. 집권 초기 김정은의 주도 아래 후견세력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면, 점차 공포정치를 통해 친정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수령의 절대성을 구축하면서 체제특성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이며 철인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모든 목표와 정책이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고, 엘리트 및 대중들은 오직 김정은의 명령과 지시를 복종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철인적 리더십이다. 수령의 지시와 교시는 무오류성을 가진 것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다만 수령의 지시와 교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잘못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지시를 왜곡하고 잘못 집행한 관료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이에 대한 숙청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버지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선군사상을 제시하고, 강성대국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했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김정은은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을 비교했을 때 권력승계가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부족한 권위와 카리스마를 선대 수령

에 의존하는 혈통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하기를 통해 혈통적 리더십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징조작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함으로써 김정은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려 하는 것이다.

셋째,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비롯한 공개활동을 통해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김정일이 은둔형 지도자로서 외부에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달리 김정은은 공개형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수령의 지시와 교시를 전달하고 있다.

넷째, 김정은은 간부들에 엄격한 모습과 대비되는 인민 친화적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 친인민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지도자로서 애민사랑을 실천하는 친인민적 지도자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다섯째, 김정은은 체제보위를 위한 군사적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 주저함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도발 등은 군사안보적 위기 시에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계승한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군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필요불가결한 리더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한계

북한체제에서 수령의 절대적 위상은 김일성 일가의 우상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수령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를 교정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서는 무오류의 수령이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신격화된 수령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평범한 인간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권력세습을 통해 선대 수령을 신격화하고 있다. 따라서 선대 수령의 권위에 의존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선대 수령의 리더십도 계승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북한체제의 특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을 공유하게 된다. 이처럼 북한의 수령들은 공통된 리더십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상적 기반과 정당성을 통해 자신만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부족한 권위와 정당성을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 하기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공식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을 중심으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경우에는 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비공식 모임을 통해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까지 김정은 리더십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크게 다섯 가지다.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 특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러한 리더십의 성격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후계자 시절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김일성의 혁명승계로부터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업적을 쌓아 나갔다. 반면에 김정은의 경우에는 후계 구축 기간이 짧아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또한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한 대내적 경제재건에 대한 압력이 훨씬 크다. 대외적으로도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리더십에 있어 실용적 성격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군사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82)]

북한은 제7차 당대회 이후 정상화된 당·국가 시스템을 활용해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수령 형상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 김정은을 실질적인 현세의 수령으로 형상화하고 수령론과 논리적으로 부합해야 수령제의 유지와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대 수령의 유훈과 권위에 강하게 의존하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백두혈통'에 대한 숭배 강화를 자신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하고자 할 것이다.

행태적 차원에서 김정은은 인민추수적 행태 시현과 간부에 대한 공포정치를 지속할 것이다. 소위 '인민대중 중심의 정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로 포장된 북한판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할 수 있다. 간부에겐 엄격하고 인민에겐 관대한 모습을 통해 인민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82) 임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p.42.

다. 이에 따라 향후 반세도, 반관료주의, 반부정부패운동과 반종파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판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청년층의 충원과 이들을 김정은의 홍위병으로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의 업적 쌓기를 위해 노력동원운동을 펼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내고자 할 것이다. 향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추진 차원에서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전식, 강행군식 노력동원운동은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위축시켜 불만의 증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83]

한편, 김정은은 '핵보유국 위상'에 걸맞는 강대국 정치를 모방함으로써 이를 주민들의 대내결속을 다지는데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에서 세계 비핵화와 함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84] 또한 이 과정에서 지금처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반제국주의 의식을 강화하면서 대내결속을 강화하는데 활용해 나갈 것이다.[85]

그러나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 이후 강화된 제도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격적 리더십을 보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업적에 기초한 현실적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이중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격적 리더십 보

83) 이기동, "통치리더십 전망", p.45.

84)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세계정치무대에서 존엄 높은 정치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할 것을 강조하였다.

85) 이기동, "통치리더십 전망", p.46.

강과 현실적 지지 획득이라는 두 개의 과제는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구조다. 인격적 리더십 보강을 위해서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전시성 사업이나 노력에 비중을 두어야 하고, 현실적 지지 획득을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용자원과 정치능력이 충분하면 두 개의 과제를 동시 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의 북한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딜레마에서 김정은은 강압적 통제라는 대체수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현실적 지지 획득 추구보다는 인격적 리더십 보강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각종 핵능력 고도화 조치와 '인공위성'(장거리 미사일) 능력의 제고 조치는 인격적 리더십을 보강하는 데 적절할 뿐만 아니라, 대외·대남 긴장고조 조치는 대내결속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어휘, 구호, 논조를 보면, 대내적으로 새로운 것이 별무한 반면, 대외·대남적으로는 자신감이 충만하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자초한 북한이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현실적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진노선 중 핵능력 건설에서 리더십의 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다.[86]

김정은이 대내적으로 공포정치를 지속함에 따라 간부사회의 동요와 이탈현상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인민경제생활 향상이라는 목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김정은의 정치적 정당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엘리트 및 인민대중의 동요와 이탈현상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86) 이기동, "통치리더십 전망", p.47.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이러한 위기 상황의 도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새로운 시대로 본격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비전 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리더십 비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특성과 리더십: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철인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혁명적 리더십 인민 친화적 리더십 개방적, 공개적 리더십	전통적 리더십 은둔형 리더십 예술가적 군주 리더십 군사주의적 리더십	혈통적 리더십 개방적, 공개적 리더십 인민 친화적 리더십 군사주의적 리더십

chapter
05

김정은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chapter 05

김정은 정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에서 진행된 숙청과 관련해서 리영호의 해임이나 장성택의 처형처럼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의 숙청작업과 관련된 정보는 한국정부의 관계부처가 입수한 첩보나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는 대북 소식통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니면 북한의 공식매체에 자주 등장하던 핵심 엘리트가 갑자기 사라져 일정 기간 등장하지 않을 경우에 그 핵심 엘리트의 숙청 가능성을 추론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다보니 한때 대북소식통을 인용한 언론보도를 통해 처형설이 나돌았던 리영길 전 군 총참모장이 제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공개석상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의 숙청을 곧 처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데, 북한의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처벌 방식에는 처형, 해임, 지방 농장, 공장 등에서의 혁명화 교육, 자택에서 자아비판서 쓰기, 김일성고급당학교 재교육 등이 있다. 따라서 숙청설이 나돌던 핵심 엘리트들이 일정 기간 후 다시 등장한다면 해임 또는 혁명화 교육 이후 다시 복권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청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김정은의 의견에 이견 제시, 불만 표출 등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이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수령의 절대성과 무오류성에 도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부문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공식 발표한 핵심 엘리트에 대한 숙청 작업과 국내외 보도를 통해 알려진 숙청설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정은 '공포정치'의 등장배경과 이유, 김정은 통치 리더십의 성격 등을 추론의 방식으로 분석했다.

김정은 '공포정치'는 김정은의 또 다른 정치방식인 '인민사랑의 정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조망할 때 그 등장배경과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김정은의 인민 친화적 행보를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강조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정은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고 정치의 본질이며 최고원칙과 최고목표라고 주장한다. 즉, 김정은 자신의 정치는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한 북한의 찬양 논리는 결국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북한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김정은을 목숨으로 결사 옹위하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 인민대중의 지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연결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수령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의 일심단결로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저해하는 종파분자,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 등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색출과 처벌은 이러한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관료들에게 공포심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숙청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령에 대한 절대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이 종파분자나 관료들의 세도나 관료주의, 부정부패로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에 대한 수령의 엄격한 처벌을 통해 인민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반종파 투쟁, 반세도와 반관료주의, 반부정부패 투쟁을 활용하여 김정일 시대에 형성된 자신의 후견세력을 자신의 측근세력으로 대체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김정일 시대에 형성된 후견그룹 세력의 영향력이 당·정·군에서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숙청과 검열과 통제는 당연한 수순일 수 있다.

현재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북한판 '부패와의 전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 운동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인민사랑의 정치, 그리고 이를 둘러싼 권력 엘리트, 대중과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김정은의 리더십 성격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김정은의 리더십을 개인의 능력, 역량, 통찰력 등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권력엘리트, 대중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권력을 둘러싼 상호작용의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통해 추론한 것이다.

첫째, 북한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대 수령의 리더십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이며 '철인적' 리더십, 둘째, 김정은의 권력승계 과정을 김정일과 비교했을 때 권력승계가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부족한 권위와 카리스마를 선대 수령에 의존하는 혈통적 리더십, 셋째,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지도자의 모습 구현, 넷째, 인민친화적 지도자 모습의 부각, 다섯째, 체제보위를 위한 군사적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 주저함이 없는 지도자의 모습 부각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 특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성격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김정일은 후계자 시절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김일성의 혁명승계로부터 찾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업적을 쌓아 나갔다. 반면에 김정은의 경우에는 후계 구축 기간이 짧아 북한 주민들을 설득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또한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은 통치 정당성 강화를 위한 대내적 경제재건에 대한 압력이 훨씬 크다. 대외적으로도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좋지 못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리더십에 있어 실용적 성격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군사주의적 성격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정권의 불안정성이나 김정은의 통치력 한계의 징후로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물론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김정은 통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최근 고위급 탈북인사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내 엘리트 계층의 동요가 확산되고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든 체제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보다는 안정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구조의 위계성이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상 핵심 엘리트 내의 반대세력의 조직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핵심 엘리트들은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에서의 기득권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 위협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유지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지배연합 구성 이후 지배 엘리트 집단 간 정책노선, 최고지도자와의 관계, 권력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상호협력과 경쟁,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진행될 때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포정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 공포정치의 일상화는 장기적으로 권력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선대 수령인 김일성

과 김정일은 이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관리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유도해 나갔다. 만약 김정은이 견제와 균형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포정치를 계속 활용한다면, 지배 엘리트 내의 동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앞으로 김정은은 인민경제 향상을 위한 발전전략과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과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적 조건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체제 보장과 개혁개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권혁, 『일심단결의 대가정』(평양: 평양출판사, 1993).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정치적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8, 2014. 12. 24.).

------, "북한정치: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18, 2014.12.24.).

------, "제7차 당대회 의미와 특징", 통일연구원,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제13차 KINU 통일포럼 자료집, 2016. 5. 16).

김경철, "수령, 당,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식 사회주의정치체제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중요요인", 『철학연구』 제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2).

김일기·이수석, "김정은 체제의 통치이념과 리더쉽", 『북한』 2014년 6월호.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김창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의 확립과정과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72호(2014).

김호진, 『한국의 대통령과 리더십』(서울: 청림출판, 2006).

디이터 젱하스,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서울: 나남, 1990).

박영자, "7차 당대회를 통해 본 조선노동당 지도체계 및 엘리트 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제13차 KINU 통일포럼 자료집, 2016. 5. 16).

박일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박찬욱·정윤재·김남국, 『미래 한국인의 정치적 리더십』(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박형중, "장성택 숙청과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4-03, 2014.2.17.).

――――,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연구사, 1994).

박형중·최대석 외, "수령독재 하에서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갈등 동학 그리고 장성택 숙청",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1호(2014).

『주체의 사회주의정치제도』(평양: 평양출판사, 1992).

윤민재,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통치성, 그리고 정치사회", 『기억과 전망』 겨울호, 통권 27호(2012).

이기동, "김정은 체제의 공식 출범 1년, 김정은 리더십과 지배연합의 안정성", 「한반도 포커스」, 2013년 5·6월호(제23호).

――――, "리영호 해임과 북한정치의 미래", 『월간 북한』 2012년 9월호.

――――, "통치리더십 전망", 『북한의 7차 당대회 평가 및 향후 전망』(국가안보전략연구원·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5.12).

이무철, "김정은 체제의 북한: 평가 및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정세: 2013년 평가와 2014년 전망』(한반도 리포트 2013/2014 제4호, 2013년 12월).

이수석, "김정은, 공포정치와 당 기구 역할 강화", 『북한』 2015년 12월호.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임재천, "북한 지도자 리더십 비교", 『동북아연구』 제29권 1호(2014).

장용훈, "현영철 숙청, 김정은식 공포정치 어디로?", 『통일한국』 2015년 6월호.

정성임, "김정은 정권의 제도적 기반: 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2012).

정성장, "7차 당대회 평가: 권력과 파워 엘리트 변동의 특징", 『김정은 체제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과제』(2016 현대북한연구회·한국평화연구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16.5.18.).

차두현, "김정은식 공포정치 하의 북한: 안정화 마무리를 위한 극약처방인가, 불안정 시작의 서곡인가?",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5-11, 2015. 5. 15.).

최진욱 외,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12).

『철학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동경: 구월서방 번각 발행).

"'김정은 공포정치'로 숙청당한 측근·고위직들", 『연합뉴스』 2015년 5월 13일.

"NHK "북 리영호, 김정은 허가없이 군부대 움직여 숙청"", 『연합뉴스』 2016년 6월 8일.

"교도통신 숙청설 北 궁석웅은 정년퇴직으로 은퇴", 『연합뉴스』 2016년 10월 17일.

"국정원 "김정은, 신변불안으로 독극물·폭발물 탐지장비 도입", 『연합뉴스』 2016년 10월 19일.

"리영길 북한 총참모장, 비리혐의로 이달 초 전격 처형", 『연합뉴스』 2016년 2월 10일.

"北 궁석웅, '명예손님' 신분으로 외교단 체육경기 관람", 『연합뉴스』 2016년 10월 16일.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국무위원장 추대", 『연합뉴스』 2016년 6월 29일.

"北 최룡해, 김양건 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 『연합뉴스』 2015년 12월 30일.

"北 최룡해, 백두산발전소 붕괴 문책 지방농장 추방돼", 『연합뉴스』 2015년 11월 24일.

"北, 김용진 부총리 처형·김영철 통전부장 혁명화 조치", 『연합뉴스』 2016년 8월 31일.

"北김정은 '공포정치' 언제까지 계속되나…잇단 처형·혁명화", 『연합뉴스』2016년 8월 31일.

"북한 김정은, 최영건 내각 부총리도 총살 처형", 『연합뉴스』 2015년 8월 12일.

"북한 김정은의 '금고지기' 한광상 복권", 『연합뉴스』 2015년 11월 20일.

"정론: 최우선, 절대적으로", 『로동신문』 2012년 6월 2일.

"최룡해·김원홍 포함 보위일꾼 6인방이 숙청 주도", 『중앙일보』 2013년 12월 14일.

『경향신문』 2015년 5월 13일.

『로동신문』 2013년 12월 13일.

『로동신문』 2013년 12월 9일.

『연합뉴스』 2013년 12월 23일.

『연합뉴스』 2015년 10월 8일.

김정은 "당 사업총화 보고", 『로동신문』 2016년 5월 9일.

사설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민주조선』 2013년 1월 3일.

Andrew Walder, "The Quiet Revolution from Within: Economic Reform as a Source of Political Decline", Andrew G. Walder ed.,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s (Berker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Andrew G. Walder, Communist Neo-Traditionalism; Work and Authority in Chinese Industr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1986).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검색일: 2016년 10월 5일).『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검색일: 2016년 9월 26일).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목록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하였나?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18 북한의 의료실태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21 북한의 체육실태
22 북한 문화재 실태
23 북한의 대남전략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34 강성대국의 허와 실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36 북한사람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37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38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과제
39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40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41 북한의 양면성
42 통일과 인문학
43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45 남북정치공동체 형성방안
46 북한, 도시로 읽다
47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48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www.uniedu.go.kr
이 책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